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광양시 학교 무상급식 90% 이상 만족...매년 증가 추세

학교급식 만족도 학생 92% · 학부모 96%

광양시가 지난해 200여 원을 투입해 지원한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0.25.~11.23. 한 달 간 50개교 학생과 학부모, 영양사 등 총 800명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급식 식단구성 만족도 등 학교급식과 관련한 20개 항목과 '친환경 광양 매실청 공급사업'과 관련한 10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급식 인지도

와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학생 92%, 학부모 96%가 만족한다고 답해 광양시의 무상급식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식단구성의 만족도, 식재료 품질, 맛, 식습관 형성 및 영양·건강 도움여부, 위생 등의 항목에서 대부분 80%이상 만족한다고 조사됐다.

2014년부터 전역 시비로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 광양 매실청 사업에 수도 96%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주요 사유는 소화가 잘된다, 갈증이 해소된다,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를 꼽았으며, 이에 따라 올해 친환경 광양 매실청 사업은 작년 대비 5천 만 원이 증액된 3억 5천만 원이 투입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청과 각 학교 등 관련 기관과 공급업체에 통보해 학교 급식 행정에 적극 반영된다.

양정수 학교급식팀장은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학교급식 개선과 운영의 내실화로 학교급식의 발전을 꾀하겠다"며 "더불어 음식의 맛 개선은 물론 메뉴의 구성 다양화,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서비스, 위생, 친절교육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더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황경석 기자

순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순천시가 당당하고 신명나는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359명 늘어난 3014명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순천시 거주자로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한정되고,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은 만8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면 9개월(공익형)동안 활동하게 되며, 공익형 참여자는 월27만원, 사회서비스형은 월54만원~59만4천원,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니어클럽(745-6090), 순천시 노인회(744-3791), 순천YWCA(744-7990)등으로 문의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름해보다 일찍 시작하여 9개월동안 실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사회 참여 기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황경석 기자

올해 순천지역 기업 설 상여금 지급 규모 늘어나

순천상공회의소

순천상공회의소는 최근 3일간 순천지역의 산업단지과 농공단지(별교, 미력, 간진, 주암)에 입주해 현재 가동중인 업체와 제조, 건설 업체 등 총 158개 표본 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설 휴가기간과 상여금 지급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순천지역 기업체의 73.3%가 5일간 휴무, 설 상여금은 71%가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 상여금은 급여봉 및 연봉제

등으로 지급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70.8%로 나타났고, 지급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체는 5.1%였으며, 상여금 지급 유무가 미정이라고 답한 업체는 24.1%로 조사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연봉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업체는 올해 46%로 지난해 28%에 비해 18%p 증가하였으며, 급여봉을 지급한다는 업체는 올해 10.34%로 지난해(18.94%)에 비해 8.6%p 감소하였다.

대우이 기본급 20~50%를 지급

한다는 업체도 5.8%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급여봉을 지급한다는 업체들의 평균금액은 전년도 36만7천원보다 7만3천원이 늘어난 4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회사 사정으로 아직 미정이라고 답한 업체가 올해 24.1%로 지난해 12.8%에 비해 11.3%p 증가한 반면에, '설 상여금이 없다'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올해 5.1%로 전년도 18.9%에 비해 13.8%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시작



보성군은 지난 18일 새해 영농 기술 실천을 위한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했다. 감자전문반으로 교육의 포문을 연 군은 2월 27일까지 관내 농업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4회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각 읍·면사무소, 복지회관 등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정착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법을 집중 교육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목과 연계한 영농 기술교육(12회), 씨감자 체계 변화에 따른 감자전문과정, 농작업 안전관리 위한 농촌 자원 과정을 2회 추진한다. 이번만 아니라 금년도 군정 시책 및 읍·면 특주시책 안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안전사용 등의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지역 특성 및 현장 경험을 살린 교수 방법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핵심 재배 기술 위주의 집중교육을 통해 올해 영농실적을 위한 좋은 기회"라며 "추후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기술, 품목별 상설교육 등 많은 교육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군, 귀농귀촌인 위한 정책설명회 개최

영광군은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귀농귀촌인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귀농귀촌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귀농귀촌인의 기준 및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대

해서 명확하게 안내하였다. 특히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용자)'의 지원이 변경되어 많은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영광군에 배정된 사업비는 3억 6천백만 원이며 사업대상자 선정

은 지난해 선착순 방식에서 올해는 선발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기존의 귀농인들을 위한 정책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창업 지원사업, 현장실용교육 지원사업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이 신청 가능한 영농정착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영광=서희권 기자

광양시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 내년 완공 목표 '순항'



축된다.

또한, 입주기업들을 위한 분석 장비와 사업화 지원시설이 마련된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외주 가공을 위해 경남 김해와 창원을 이용해왔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센터 건립공사는 부지매입과 장비구축 수요조사 등 1차년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열처리 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재)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전남테크노파크(이사장 김영록)는 광양시 중소기업 사업화(R&BD) 지원 사업과 전남형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승재 기업지원팀장은 "열처리 지원센터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남도 등과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센터가 조성되면 뿌리산업 연관기업 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와 뿌리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을 말한다.

광양시 익산신단은 2016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열처리와 용접을 특화업종으로 32만 2,875㎡ 규모의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